

韓國教育學史의 研究

—現代韓國教育哲學의 理解—

韓 基 彥
(教育學科)

I. 韓國教育哲學의 摸索

本稿에 있어서는 한국교육학사 중 '현대한국교육철학의 이해'에 관하여 논술하려고 한다. 나는 그동안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하여 「한국교육학사의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¹⁾ 말할 것도 없이 본 논문은 그와 같은 일련의 연구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모두가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지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한국교육철학의 정립이라는 과제 의식은 적어도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현저화하였다.⁽²⁾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현급에 이르러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는 제150회 월례발표회를 계기로 모두 3회에 걸쳐 「韓國教育哲學의 摸索」이라는 근제으로써 이념론·수용론·방법론을 다룬 바 있다.⁽³⁾ 나는 그 중 「理念論——基礎主義를 中心으로」 발표한 바 있다.⁽⁴⁾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새삼 한국교육철학의 모색이 과제가 되는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한 나라의 교육의 준거가 되고 원리가 되며 지표가 되는 教育哲學이 定立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에서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 있어서는 乙酉光復 이래 우리 나라 교육학

(1) 拙稿, 「現代韓國教育學史序說—韓國教育四半世紀의 反省」(225-297)/拙稿, 「韓國教育學의 系譜」(298-313), 拙稿, 「韓國教育의 理念 및 教育史學의 研究」(298-369) 이상은 拙著, 《增補版 韓國教育의 理念》(서울대학교출판부, 1974)에 수록되어 있음.

拙稿, 「1930年代教育學振興運動」(236-262), 拙稿, 「韓國教育學定礎의 歷史的 自己展開」(263-312), 拙稿, 「韓國比較教育學의 課題와 展望」(313-347) 이상은 拙著, 《教育觀의 確立》(韓國能力開發社, 1979)에 수록되어 있음.

拙稿, 「韓國教育哲學의 學史的 研究」, 《第1回 韓國學 國際學術會議 論文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拙稿, 「韓國教育史學의 課題와 展望」, 《韓祐勳博士停年紀念 史學論叢》, 知識產業社, 1981./拙稿, 「韓國における教育學の進展」, 《國立教育研究所紀要》第98集, 東京, 國立教育研究所, 1981./拙稿, 「韓國教育哲學의 開拓者들」, 《韓國教育哲學研究會論文集》, 1987./拙稿, 「새로운 韓國教育哲學의 座標」, 《教育哲學》, 第6號, 韓國教育學會 教育哲學研究會, 1988.

(2) 이를테면, 拙稿, 「基礎主義의 提唱—傳統과 改革의 調和를 통한 人間形成의 論理序章」, 1966/拙著, 《韓國教育의 理念》, 서울대학교출판부, 1968.

(3)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한국교육철학의 모색》, 1988년도 연차학술대회 발제·토론자료집, 1988.

(4) 上掲書, pp.1-20.

D
3798.5
Se 677M
V. 38
C. 2

자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의식하여 왔으며, 대처하여 왔는가를 學史的으로 고찰해 보려고 한다.

II. 韓國教育哲學思潮

그간 한국교육학자로서 특히 교육철학연구에 주력해 온 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즉, 오천석을 비롯하여 김계숙, 김기석, 이인기, 허현, 립한영, 한기언, 류형진, 안인희, 박봉목, 김정환, 김재만, 김선양, 정세화, 정순목, 김인희, 이돈희, 한명희, 김은산, 신득렬, 황원영, 오인탁, 박선영, 이홍우, 김안중, 성기산, 김영채, 정영수, 이근엽, 박덕규, 남궁달화 등이다.

이제 여기서는 乙酉光復 이후 현급에 이르기까지의 한국교육철학사조에 관하여 그 大要를 살펴 보기로 한다. 그것은 한편 한국교육철학 정립의 과제 의식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 있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乙酉光復 이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現代教育哲學은 듀이哲學이었다. 「한국교육에 미친 듀이 教育思想의 영향」⁽⁵⁾이라는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해방 당시 듀이사상은 마치 ‘民主教育의 福音’인양 받아들여졌던 것이며, 새교육의 지포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듀이 教育哲學을 도입, 이에 준거하여 당시 우리나라 교육을 주도한 교육철학자로는 吳天錫, 李寅基, 許鉉 및 林漢永을 들 수 있다.

吳天錫은 이인기와 함께 한국교육학계의 雙璧을 이룬 元老의 한 분이었다. 그는 美軍政時代의 문교부 차장 및 부장을 지냈으며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및 제 2 공화국시대의 문교부장관, 제 3 공화국시대에 이르러 駐멕시코 대사가 되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장 및 한국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별세 때까지 학술원 원로회원으로 있었다. 또한 그의 저서는 《天園吳天錫教育思想文集》(全10卷)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그의 저서 《教育哲學新講》은 한국교육학회 학술상(제 1 회, 1972)을 수상한 바 있다.

그가 1964년 11월에 간행한 《民主主義教育의 建設》은 듀이와 킬패트릭의 교육철학에 의거하여 집필, 저술된 것으로서, 당시 새교육의 길잡이가 되는 책이 거의 없었던 때였으니 만큼 크게 환영되어 一線教師들에게 널리 읽혀진 책이 되었다. 뒤이어 1960년에는 그간 발표한 글을 모아 《民主教育을 志向하여》가 간행되었는데, 듀이철학으로 일관된 논지를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그는 듀이의 主著 《民主主義와 教育》을 林漢永과 공역, 간행함으로써 崔秉七에 의한 부분역본의 아쉬움을 극복시켰으며 듀이철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말로 옮겨놓는 일을 하였다. 그후 여러 인사들에 의한 듀이 저서의 번역사업이 계속 진행되어⁽⁶⁾ 급일

(5) 拙著, 《教育의 歷史 哲學的 基礎》, 서울, 實學社, 1975, pp.371-387.

(6) 이틀데먼, 李烘雨譯, 《民主主義와 教育》(教育科學社, 1987)은 譯註가 뛰어나다.

에 이르고 있다.

한국교육학계의 원로요 선구자의 한 분이었던 碧溪 李寅基(1907~1987)는 商科大學(초대) 학장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長, 同 大學院長, 淑明女子大學校 總長, 嶺南大學校 總長, 韓國教育學會長, 한국교육사교육철학회장 및 陶山書院 院長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및 영남대학교에 각각 '教育學科'를 創設함으로써 교육학 전공자 배양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는 별세 때까지 학술원 원로회원이었으며, 또한 「국민 교육헌장」起草委員의 한 사람이다.

그의 著書로는 《教育和 時想》⁽⁷⁾이 있다. 이 책에는 1935년 《哲學》誌 제 3호에 발표한 논문 「教育原理로서의 個性과 社會와 文化」⁽⁸⁾를 비롯한 40여년간에 걸쳐 발표한 글이 수록되어 있어 韓國教育學史研究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문헌적 가치를 지닌 저서라고 본다.

그는 듀이의 《學校와 社會》를 일찌기 번역한 바 있거니와, 「民國의 教育精神과 學制改革」⁽⁹⁾(1950)이라는 논문에서는 그의 민주적 교육관이 잘 나타나 있다. 즉, 學制改革의 문제를 말함에 있어, 學校系統을 세움에 가장 基本的 原則이 되는 다섯 가지 조목을 들었는데, 그것은 ① 국가의 모든 屬員에게 一定한 標準의 教育을 빠짐없이 보급시킬 것. ② 基礎教育 이상의 교육은 수학자의 장래 할 職業的 活動을 예상하여 학교의 정도와 종류를 가급적 多樣化할 것. ③ 個性에 따른 進學의 自由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각 계단 학교간의 종적, 횡적 연락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조직을 확립할 것. ④ 實務에 就하는 자의 교육은 그 受業年限을 가급적 단축할 것. ⑤ 學術研究를 위하여 특수한 기관을 설치할 것을 말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있어 있어서는 안 될 教育哲學者의 한 사람으로서 꼽고 싶은 것은 許鉉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듀이철학을 잘 이해한 사람으로서 그러기에 듀이철학의 韓國化에 힘쓴 자국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그의 遺稿文集인 《人間의 第四革命》(1967)중 論集의 書名이 되기도 한, 같은 제목인 論文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므로 의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충분한 주의를 하되 우리의 基礎作業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어떠한 청년이 나에게 “선생님 한국서 듀이 教育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성공치 못합니까?”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한국 교육자들이 듀이를 받아들이고 버리기 때문입니다. 언제 듀이가 한국에다 美國教育을 하라 하였습니까?” 모름지기 韓國은 最大限의 自然 내지 社會科學을 배움으로써 기술의 사회적 기초를 쌓을 때이다.

人類는 하나이다. 그들은 대열은 다르나 같이 나갈 수밖에 없나니, 나는 나의 가장 존경하는 聖雄

(7) 李寅基, 《教育和 時想》, 서울, 螢雪出版社, 1976.

(8) 上揭書, pp.15-35.

(9) 上揭書, pp.59-73.

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이 말을 끝내코자 한다. 링컨의 말처럼 “갈라진 집은 오래 못견딘다. 적을 없애는 방법은 그를 친구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 부처님, 풍자님, 예수님……들께서도 물론 “아! 나의 형제다운 말이로군”이라 하실 것으로 필자는 믿는 바이다.⁽¹⁰⁾

라고 하였는데, 위에 인용한 글의 숨意는 許鉉의 듀이 哲學 理解의 深度를 나타내는 것이요, 그가 주력한 것은 듀이철학의 한국적 실현화에 있었던 것이다.

한국교육철학 개척자 중 한 분으로 한국교육학회 회장(초대)을 지낸 西隱 金基錫(1905~1974)을 우리는 또한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¹¹⁾

西隱思想을 말함에 있어 金泰泳은 ‘義’의 理念에 주목하고 있고, 金丁煥과 金城鎭은 《現代精神史》⁽¹²⁾를 擧論하고 있다. 거기에는 西隱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사상적 핵심이 잘 나타나 있고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사실 그의 후반기는 「독립선언서」解義 및 3·1정신의 보급과 국민윤리운동의 심화로써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하겠다.

金丁煥은 西隱의 教育思想史의 位置에 대하여 다음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즉, 그는 말하기를,

金基錫은 日帝下의 民族受難期, 해방 직후의 精神混亂期, 그리고 新生韓國의 發展期라는 세 시기에 민족은 오로지 교육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富強하게 될 수 있다는 신념아래 교육의 생애를 일관한 理論과 實踐을 兼備한 탁월한 지도자 중의 하나이다.⁽¹³⁾

라고 하면서, 그의 한국 교육사상사적 의의를 꼽고 있다.

첫째, 교육은 ‘人格革命’이라는 귀한 생각을 다듬어 낸 데 있다. 이런 생각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島山에게서 비롯됐고 南岡에 의해서 계승된 교육이념이지만 이것이 학문적으로 다듬어진 것은 金基錫에 의해서라 할 수 있다.

둘째,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人格의 感化를 무의도적으로 풍겨 제자로 하여금 인생에 일대전환을 맛보게 하는 ‘스승像’의 정립이다.

‘스승’이 교육을 하는 것이지 ‘기술’이 교육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그의 생각은 그가 南岡이란 위대한 스승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南岡李昇薰》의 序文에 맺은 스승에 대한 깊은 讚辭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런대로 南岡의 정신과 사업의 일면을 전하여 이것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10) 許鉉, 《人間의 第四革命》.

(11) 拙稿, 「西隱 金基錫의 生涯와 思想」(1-12)/金城鎭, 「恩師金基錫教授의 哲學思想—그의 著書『現代精神史』를 中心으로」(13-26)/金泰泳, 「金基錫의 ‘義’의 倫理思想研究」(27-48) 이상은 《社會와 教育》第8輯(1984)인 「故 西隱 金基錫教授 10周忌追慕號」에 수록되어 있음.

이밖에 논문으로서, 金泰泳, 「西隱 金基錫의 생애와 사상」, 《教育哲學》, 第6號, 韓國教育學會 教育哲學研究會, 1988(pp.40-65).

(12) 金丁煥, 「現代精神史」, 韓基彥編, 《教育名著解題》, 서울, 能力開發社, 1979, pp.126-132/金城鎭, 上揭論文, pp.13-26.

(13) 金丁煥, 上揭書, pp.131-132.

精神의 遺産이 된다고 하면, 南岡의 가장 못난 제자요, 또 이 傳記의 저자에게는 다시 없는 영광이 될 것이다.” (iv).

세째, 교육을 민중의 것으로 널리 개방시켰다는 점이다. 그는 사회계몽가적 감각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 YMCA강당을 빌려서 오랜 동안 계속한 公開講演, 10년간이나 발간한 《理性》이란 계몽잡지, 그리고 「東方아카데미」의 설립 등이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다.

넷째, 교사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선도적으로 활약한 점이다. 대한교육연합회, 서울특별시 교육회를 그가 남달리 관심을 갖고 이것을 키워나간 것도 이런 뜻에서였으며, 또 그가 만년에 집없는 교사들을 위해 「栗谷村」을 만들고자 힘쓴 이유도 여기에 있다.

「栗谷村」이 五山時代의 한 제자의 배신으로 실현을 보지 못했고, 또 그는 그 정신적 충격과 파로로 쓰러지게 된 것은 우리 교사에게는 정말 애석한 일이다.

다섯째, 페스타로찌의 사상을 널리 소개한 데 있다. 비록, 그에게는 페스타로찌에 관한 論文은 없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정신을 몸소 체험하여 이것을 강의 등을 통해서 널리 소개한 점은 크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밑줄은 著者).

이상 다섯 가지는 西隱에 대한 교육철학적 평가이기도 한 것이다.

생각컨대, 西隱에 있어 가장 보람된 시기를 든다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시절이라고 해야 할런지도 모르겠다. 그의 지극한 사랑과 人格的 感化를 받은 수많은 人材들이 1947년부터 1960년 사이에 교육계로 진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西隱은 1953년 4월 4일 추대되어 「韓國教育學會」 初代 會長에 취임하였다. 그는 제 2대 회장으로 재차 추대되었다.⁽¹⁴⁾ 이것 하나만으로도 당시에 있어서의 그가 한국교육학계에서 차지한 比重의 크기와 人望이 두터웠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한 일인듯이 기꺼히 그를 초대 학회장으로 選出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발족한 「한국교육학회」는 이미 창립 35주년을 넘겼고 「교육사연구회」 「교육철학연구회」 등 모두 13분과 연구회를 갖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1983년 4월에는 忠北大學校에서 3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역대 학회장의 공적을 기리는 功勞感謝牌가 이날 미망인 金敬實 女史에게 故人을 기리며 증명되었다.

西隱의 공적을 말함에 있어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의 하나는 그가 ‘국민윤리운동의 선구자’라는 점이라고 하겠다.⁽¹⁵⁾ 그리고 西隱이 그의 臨終에 남긴 한 장의 메모⁽¹⁶⁾가 있는데,

(14) 韓國教育學會編, 《學會要覽》(1983), p.10. 在任期間은 1953.4~1955.9로 되어 있다.

(15) 拙稿, 「韓國教育哲學의 開拓者들—새로운 韓國教育哲學座標設定의 課題와 展望」, 《教育哲學》, 第6號, pp.104-105.

(16) 제 1권 論文·隨想(해방이전 원고) 1930년 이후 해방까지 동아, 조선일보와 조선일보사 간행잡지 《朝光》과 《女性》에 발표한 논문과 수상들 수록.

제 2권 獨立宣言書解義

독립선언서 원문과 현대어역과 朴殷植著 韓國獨立血史 속에 있는 漢譯을 신고 現代精神史 속의 「1919년의 理念」을 해설논문으로 붙이고 성서주해 형식에 따르는 주석(未執筆)을 붙이고

이 한 장의 메모가 우리에게 호소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위대한 知的 자이언트를 생각하게 되고, 여기에 우리는 蒼空에 푸른 꿈을 그리고 간 教師의 教師, 韓國教育哲學의 開拓者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다음은 孤松 林漢永(1914~1986)에 관해서이다. 그는 오천석과 함께 《민주주의와 교육》을 번역하였음은 물론, 《思考하는 方法》을 번역하였고, 《듀우이教育思想의 研究》와 《존 듀우이의 生涯와 思想》을 넘으로써 본격적인 듀이 교육철학 연구의 이정표를 수립하였다.

이렇듯 현저한 듀이 교육철학의 수용양태를 볼 수 있거니와 한편 그밖의 다양한 現代教育哲學 소개 및 수용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하나는 번역서의 간행이요, 다음은 다양한 교육철학을 내용으로 한 저서요, 또 하나는 解題書이다.⁽¹⁷⁾

한편, 1960년대 초부터는 韓國教育哲學의 定立을 위한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또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국교육사교육철학회 및 한국교육사연구회의 결성 및 발전에 관해서이다.

이 두 학술단체는 현재 한국교육학회의 산하에 있다. 그런데 위의 두 연구회는 1964년

3·1운동 당시의 중요문헌을 수록, 부록으로 선언서의 영역, 독역, 불역, 수록.

제 3권 哲學

내 철학개론(삼한사 출판)에 高亨坤 편집 《교양철학》(서울대학교) 중의 내 논문 그 밖에 철학관계 논문 수록.

제 4권 現代思潮

現代精神史 改題

《現代思想講座》속에 있는 내 논문도 수록, 그 밖에 現代思潮에 관한 것을 수록.

제 5권 淸鄉記

載東文化社에서 내기로 조판, 지형까지 뜬 《西窓記》改題

제 6권 續淸鄉記

5권과 비슷한 글을 모아서.

제 7권 隨想 1.

제 8권 隨想 2.

제 9권 隨想 3.

1) 윤리(6卷), 2) 理性(1호~11호까지는 延大·東大 도서관에 증명했음). 1호에서 19호까지의 法話所感들과 3) 放送원고 중에서 4) 1968년 내가 주재 간행한 잡지 《自由》의 권두논문, 進軍記(進軍記는 金澈이란 펜 네임으로 발표).

제 10권 공산주의에 관한 평론: 未完成稿 《반공윤리》改題. 그 외에 공산주의 비판논문 수록.

제 11권 傳記

(남강 이승훈 改題)

제 12권 民族中興과 倫理

교육현장 해설(洪相圭씨가 진행)을 포함한 최근 민족, 국가 관계의 放送 원고 수록.

이 외에

1) 梁元達, 崔應祥 교수와 나 3인의 論集인 十三月(乙酉文化社)이 있고,

2) 4·19직후 연합신문, 수복이후 조선일보에 1, 2편 논문이 있고,

3) 1947년 서울에 와서 《白民》(잡지)와 전란중 부산에서 《新思潮》에, 1947년 어느 호에 《世代》 또는 《政經研究》에도 긴 논문이 있고.

(17) 拙稿, 「現代的 教育」, 韓基彥外, 《韓國教育史》, 中央教育研修院, 1986, pp.205-206.

(11월 11일)과 1967년(7월 10일)에 각각 創立되었거니와 이 두 연구회가 그간 이루어 놓은 학문적 업적은 심대한 것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月例發表會가 그간 활발하게 개최되어 온 일을 비롯하여 최다수의 한국교육학회 學術賞(저작상 및 논문상) 수상자가 나온 것만 보아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다.

둘째는 한국의 교육적 전통 발굴에 관해서이다.

‘한국교육에 있어서의 전통의 발굴과 그 계승에 관한 문제’는 일찌기 나 자신이 제기한⁽¹⁸⁾ 이래로 그후 한국교육사, 교육철학자들에 의하여 점차 구체적인 연구성과가 축적되어가고 있다.

李寅基는 「韓國教育哲學의 回顧와 展望」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위와 같은 문제제기가 1960년대의 우리들의 공동된 학적 과제 의식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즉,

그러한 추세 속에서 教育史教育哲學研究會가 탄생하였습니다. 專攻分野研究會 성립의 嚆矢라 하겠으며, 그것은 우리 나라 教育學 發達史에 하나의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教育史教育哲學研究會가 지난 13년 동안에 쌓아 온 업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 研究誌 創刊을 보게 된 事實 自體가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우리 나라 學界에서 民族主體性이 연구과제로서 부각되어 傳統文化의 發掘 繼承, 國家近代化의 過程에서 傳統과 創造의 관계에 대한 반성이 심각해졌을 무렵에 教育史教育哲學研究會가 창설되었습니다.⁽¹⁹⁾

라고 언명하고 있다.

셋째는, 교육철학서의 간행 및 새로운 한국교육철학의 정립에 관해서이다.

일찌기 林漢永은 《教育哲學》⁽²⁰⁾을 단행본으로 출간함으로써 당시 미개척적이었던 이 분야에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그후 吳天錫에 의하여 출간된 《教育哲學新講》⁽²¹⁾은 전형적인 교육철학 교과서의 하나로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에서는 일반철학적인 기본이론을, 제 2부에서는 교육철학의 제 제과를, 그리고 제 3부에서는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논술하고 있다.

이 밖에도 金丁煥의 《教育的 哲學과 課題》와 《全人教育論》⁽²²⁾, 金桂淑의 《교육과 哲學》⁽²³⁾, 朴奉穆의 《교육과 哲學》⁽²⁴⁾, 金善陽의 《教育哲學》⁽²⁵⁾, 李敦熙의 《教育哲學概論》⁽²⁶⁾, 韓明希

(18) 여기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韓國教育史教育哲學會 제 1회 월례발표회(1964.12.14)에서 韓基彦이 「教育史研究의 問題點」으로서 지적하였고, 韓國教育學會韓國教育史研究會 제 1회 월례발표회(1967.9.8)에서 「韓國教育에 있어서의 傳統의 發掘과 그 繼承에 관한 問題」를 다루었다.

(19) 李寅基, 「韓國教育哲學의 回顧와 展望」, 《教育史教育哲學》 創刊號, 韓國教育學會教育史教育哲學研究會, 1977, p.7, 9.

(20) 林漢永, 《教育哲學》, 서울, 豐國學園出版部, 1957.

(21) 吳天錫, 《教育哲學新講》, 서울, 敎學社, 1972.

(22) 金丁煥, 《全人教育論》, 서울, 世英社, 1982. (1988년 한국교육학회학술상 수상 저서)

(23) 金桂淑, 《교육과 哲學》, 서울, 一潮閣, 1980.

(24) 朴奉穆, 《교육과 哲學》, 서울, 文音社, 1983.

(25) 金善陽, 《教育哲學》, 서울, 敎文社, 1976.

(26) 李敦熙, 《教育哲學概論》, 서울, 博英社, 1977.

의 《教育哲學》⁽²⁷⁾, 그리고 내가 쓴 《韓國人的 教育哲學》⁽²⁸⁾ 등이 있다.

Ⅲ. 民主主義教育의 建設

‘민주주의교육의 건설’이라는 말은 天園 吳天錫(1901~1987)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말도 되리라 본다.

鄭世華는 天園의 教育思想을 말함에 있어 네 가지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²⁹⁾ 즉, 제 1기(1932~1936) : 만 31세부터 35세까지인데, 이 시기는 天園이 教育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단계이다.

1931년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民族同化手段으로써의 教育》(*Education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Assimilation*)이라는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귀국 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普成專門學校(현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1932~36)하면서 활발한 教育활동을 전개하였다.

天園은 그가 쓴 학위논문을 통하여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동원된 教育의 실상을 폭로하였거니와, 귀국 후에도 계속하여 신문, 잡지의 논설로 또는 강의나 강연으로 일본의 침략 教育에 항거했던 것이다.

제 2기(1945~1960) : 만 44세부터 59세까지인데, 이 시기는 天園에게 있어 教育활동 재개의 시기요, 활발한 민주교육 실천의 단계이다.

그는 8·15광복 직후부터 미 군청정 문교부 차장 및 부장(1947)을 역임하였고, 그후 대한 教育연합회장(1949), 한국교육학회 회장(1955~1960),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장(1955~1960)에 취임하였고, 다시 1960년에는 제 2공화국 문교부장관을 맡게 되어, 그의 ‘세교육운동’은 이어져 나갔다.

제 3기(1960년대) : 60代인데 5·16군사혁명 이후 약 10년간으로 초빙교수로 渡美 일리노이 대학교와 피바디 대학교에 체류하기도 하였고, 1964년부터 3년간 駐 멕시코大使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집필 간행한 책이 그의 主著로도 꼽히는 《民族中興과 教育》(1963) 및 《韓國新教育史》(1964)이다.

제 4기(1970~1987) : 만 69세부터 86세까지인데, 天園 教育사상의 完熟의 단계이다.

이 시기에 그는 《教育哲學新講》(1972)을 비롯하여 베스트 셀러인 《스승》(1972), 《發展韓國의 教育理念探究》(1973) 등 力著를 집필 간행하였다. 이리하여 1975년에는 마침내 《天園 吳天錫 教育思想文集》(全 10卷)의 간행을 보기에 이르렀다.

(27) 韓明希, 《教育哲學》, 서울, 培英社, 1983.

(28) 韓基彥, 《韓國人的 教育哲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8.

(29) 鄭世華, 「天園 吳天錫박사의 教育思想」, 《天園吳天錫先生 그 遺德을 追慕하며》, 天園 吳天錫博士 教育人葬委員會, 1988, pp.20-23.

天園은 “나는 내 祖國의 民主教育을 위하여 살고 일하다 가노라”라는 遺言을 하였다 (1987. 10. 31)⁽³⁰⁾고 하거니와, 「天園吳天錫博士紀蹟碑」에는 다음과 같이 故人을 기리고 있다.

20세기의 여명과 더불어 이 땅에 생을 얻어 변전하는 역사 속에서 고난과 의로운 삶을 살다 간 한 시대인이 여기 있다. 소년 시절 조국이 약탈 당하는 것을 겪으면서 애국의 열정을 가슴에 새겼고 청년기 고향의 미국 유학에서 민주의 진리를 몸에 익히게 된다. 민족 해방과 함께 이 나라 새교육의 씨앗을 뿌리고 평생 민주교육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산 스승이 여기에 잠들어 있다.⁽³¹⁾

고 하였다.

그런데, 한국교육학회는 그의 八旬을 기념하여 《教育學研究》誌 特輯號⁽³²⁾를 발간하였다.

天園의 글로는 「發展韓國의 基本課業과 教育의 指導理念」이라는 제목이 보인다. 각주에 「吳天錫, 發展韓國의 教育理念探索(서울: 培英社, 1973), pp. 279-307 轉載」⁽³³⁾라고 하여 出典을 밝히고 있다. 생각컨대 天園 教育思想의 精粹를 여기에 제시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 大要를 적어 보면,

I. 民主主義의 韓國化

1. 同族同一體 意識의 確立
2. 主體性의 確立
3. 民族文化의 暢達

II. 民族主義의 民主化

1. 휴머니즘에의 復歸
2. 自我實現을 위한 自由風土의 確保
3. 萬人의 秀越 追求

III. 近代化의 人間化

1. 人間幸福의 追求
2. 高次的 價値의 追求⁽³⁴⁾

로 되어 있다.

나 역시 天園의 教育이념을 ‘形而上學型’(本質追求型)으로 파악하고 그 특성을 기술한 바 있었다. 즉,

(30) 上揭書, p. 23.

(31) 上揭書, p. 148.

(32) 《教育學研究》(吳天錫博士 八旬紀念 特輯, 主題: 民主主義와 教育), XVIII-1, 1980, pp. 5-81. 여기에는 天園의 論文 이외에, 林漢永의 「Dewey思想에 있어서의 民主主義와 教育」, 金在萬의 「道德教育의 教育學的 意味: 존 듀이를 中心으로」, 李榮德의 「민주주의, 진보주의 教育, 教育의 人間化」, 吳基亨의 「授業現場의 教育과 民主主義: 教育發展研究(EDP)를 中心으로」, 그리고 鄭世華의 「民主主義 理念에 照明한 天園 吳天錫의 教育思想」이 게재되어 있다.

(33) 上揭誌, p. 5.

(34) 吳天錫, 「發展韓國의 基本課業과 教育의 指導理念」, 上揭誌, pp. 5-18.

(1) 민주주의의 韓國化, (2) 민족주의의 民主化, (3) 근대화 人間化라는 세 가지를 들었다. 이것은 《民族中興과 教育》(1963)에서 강조했던 세 가지(민주화·근대화·한국화)를 다시 이렇게 교차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바람직한 한국교육의 指標 설정을 위한 몇 가지 示唆'라고 하여 모두 여섯 가지를 들었다. 즉, ① 統整된 人品의 완성을 위하여, ② 自律的 意思決定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③ 變化에의 能動的 適應力을 기르기 위하여, ④ 高次的 價値에 대한 同一體意識助成을 위하여, ⑤ 영원한 成長으로의 발돋움을 위하여, ⑥ 創造世界에의 參與를 위하여라는 것이었다. 다만, 왜 여섯 가지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³⁵⁾

고 天園의 「발전 한국의 基本課業과 教育의 지도 이념」에 관하여 '3理念 6概念'으로 정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적이 있다.

天園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인 金恩山은 《發展韓國의 教育理念 探究》를 말함에 있어 특히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하여 크게 주목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統整된 人品(integrated personality)의 완성

이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인식하고, 그 위에 자신의 生活哲學을 세우며, 선택된 價値觀에 의지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때 성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 이것은 사람을 自主性 위에 세우기 때문이다. 둘째로, 思想과 生活에 統一性을 주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확고한 人生철학을 가진 統整된 人品의 사람의 思考나 行動은 合理的이기 때문이라 한다.

2. 自律的 意思決定 능력의 배양

이것은 他意가 아닌 自意에 의해 자기의 意思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전통사회와 近代社會를 구별하는 하나의 척도다.

自律的 思考에 의해 우리의 의사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 올 것은 오직 他律·統制·專制 뿐이다. 따라서 민주사회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교육은 전통적 교육관에서 탈피하여 생각하고, 자기 결정과 선택에 의해 자신의 행위를 다스리는 능력을 기르는 일에 힘써야 한다.

3. 變化에의 能動的 適應力을 기르

현대는 變化의 世紀다.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변화에의 적응에는 伸縮性·彈力性이 필요하다. 그것이 受動的·無分別的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能動的·批判的인 것이 되어야 한다. 비판정신에 의한 선택적, 능동적, 건설적인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과거의 교육은 전통적 문화유산 전달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이 능력을 기르는 데 실패했

(35) 拙著, 《教育의 歷史 哲學的 基礎》, 서울, 實學社, 1975, pp.897-898.

다. 금후의 교육은 이 일에 힘써야 한다.

4. 高次的 價値에 대한 同一體意識助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의교육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죽이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의 이익이 곧 사회의 이익이요, 사회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라는 同一體意識을 기르는 일이다. 自我의 이익을 초월하는 것이 결코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층 더 풍부히 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自覺하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5. 永遠한 成長으로서의 발돋움

교육이 의도하는 변화는 바람직한 목적을 향하는 成長이다. 그리고 성장의 참뜻은 自我實現과 社會發展에 기여하는 성장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건은 自由의 風土다. 교육은 全生涯를 통해 중단없이 성장하려는 의욕에 찬 인물을 양성해야 한다.

6. 創造世界에의 參與

인생생활에서 진정한 의의와 가치를 찾는 일에 중요한 것이 創造的 生活에의 참여와 창조는 밖으로 나타나는 창조 외에 인간사회를 美化하고 개인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內面的・精神的 가치 창조가 더욱 중요하다. 창조세계에의 참여자를 양성하는 데 우리 교육의 지표를 두어야 한다.⁽³⁶⁾

이렇게 나는 天園이 생각하는 바 ‘교육적 인간상’을 그의 제자 金恩山에 의한 여과 과정을 통한 것으로써 제시해 보았다.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天園의 교육 사상 자체와, 그의 제자에 의한 사상적 여과과정에 대한 이해라는 二重的 目的이 달성되는 효과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고찰한 天園의 교육이념이자 교육사상은 그가 쓴 《韓國新教育史》結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만큼 天園의 교육사상에 있어 명시적인 부분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나는 《韓國新教育史》에 관한 書評에서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즉,

셋째, 단순한 羅列式이나 編年體 敘述 이상으로, 시종일관 저자로서의 교육학적 자기 주장이 담겨져 있다는 것.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結章: 回顧와 展望——우리가 志向하여야 할 教育〉(pp.515-536) 부분이다.

吳 박사님 이미 그 전례에 《民族中興과 教育》(1963년)을 집필 간행함으로써 스스로의 教育的 經綸을 유감없이 개진한 바 있다. 나 역시 이 책에 대한 書評을 《한국교육학회 소식》에 게재한 바 있었

(36) 金恩山, 「發展韓國의 教育理念 探究」, 《天園吳天錫先生 그 遺德을 追慕하며》, pp.56-58.

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황은 이 ‘民族中興’이라는 말이 널리 사회에서 쓰여지기에 이르기에도 하였다.

어쨌든 이 〈結章〉 부분은 吳 박사사의 교육적 經綸이요, 교육철학의 要點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보니, 吳 박사가 序文에 밝힌대로 “著者는 손은 과거를 記述하면서도 눈은 언제나 현재와 장래를 凝視하였다”라는 말 그대로임을 알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吳 박사사는 敎育의 民族的 課題로 자유인의 敎育, 사회인의 敎育, 민족인의 敎育, 세계인의 敎育, 현대인의 敎育, 경제인의 敎育, 도덕인의 敎育, 새로운 敎育觀의 수립, 민주敎育 체계의 정비, 敎育의 과학화, 계획된 敎育, 敎育의 질적 향상 등 열 두 가지를 꼽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우리 사회와 민족의 近代化, 民主化 및 韓國化 운동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우리 민족의 當面課業을 지적한 바 있다. 이 ‘近代化·民主化·韓國化’라는 세 가지는 앞서 들은 《민족중흥과 敎育》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吳 박사는 그후 《발전한국의 敎育이념 탐구》(1973년)에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1) 민주주의의 韓國化, (2) 민족주의의 民主化, (3) 근대화(人間化)라는 말로 발전시켰다.

이런 일들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韓國新敎育史》에서는 책 전체에 흐르는 바 天園의 민주敎育 사상이 강렬하게 투영되어 있다고 하겠다.⁽³⁷⁾

고 논평해 보았던 것이다.

IV. 듀이敎育哲學의 探究

孤松 林漢永(1914~1986)의 경우는 1952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敎育學 박사 학위를 수령하고 귀국한 이래로 그가 생을 마칠 때까지 30여년간을 주로 듀이 敎育철학 연구에 헌신하였다. 그의 敎育學사적 의의 또한 여기서 찾아 볼 수 있으리라.

그의 수제자중의 한 사람인 李根燁은 그의 논문 「孤松 林漢永의 生涯와 思想」⁽³⁸⁾에서 그의 학문적 位相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렇듯 임한영은 듀이의 Pragmatism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이것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시키려고 한 세대를 노력해 왔으나 우리는 근년에 와서 일고 있는 실존주의 사상, 신 마르크스주의 사상, 민족주의 사상 등으로 인해서 다소 퇴색한 것 같이 보이는 듀이의 사상 속에 담겨진 과학적 인도주의(scientific humanism)의 신념을 확고히 잡고 변증법적으로 한국의 敎育이념을 제정립하기 위한 밑을 수 있는 한 基點으로 삼아야 하겠다. 그가 그렇게도 충실하게 설교하였던 듀이의 사상은 그의 후학들에 의하여 계승되고 전개되고 있다.⁽³⁹⁾

고 하였다.

한편 논평을 쓴 申得烈 역시 孤松의 학사적 위치에 대해서는 그가 제자의 입장에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하고 있다.

(37) 拙稿, 「韓國新敎育史」, 上揭書, pp. 65-66.

(38) 李根燁, 「孤松 林漢永의 生涯와 思想」, 《敎育哲學》第6號, pp. 66-79.

(39) 上揭論文, p. 76.

한국의 교육철학계에 있어서 임한영의 위치는 어떠한가? 이 질문은 직접적인 제자로서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다. 보다 공정한 평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나[申得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그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임한영은 그의 생애동안 한 사람의 위대한 교육철학자 John Dewey를 만났으며 그의 교육철학을 연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한 분이다. 그가 비록 Dewey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위대성(greatness)을 등한시하는 후학들에게 하나의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임한영은 교육학자들에게 Dewey를 널리 알리는데 공헌했다. 그에게서 수학한 사람들은 물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Dewey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그가 주도한 한국의 「듀이연구회」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는 생존해 계실 때 질문을 한 적이 있다. Dewey연구의 수준차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폐쇄정신은 Dewey가 가장 싫어하는 정신이었다. 일본의 Dewey연구회에 비교할 때 그 폐쇄현상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한국의 교육철학도는 사상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서는 Dewey를 거쳐가야 한다. 그는 교육철학의 자율성을 성립한 학자이었으며 교육철학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었다. 임한영은 이 점을 어디에서나 강조하였다. 이러한 강조는 현재 결실을 맺고 있으며 국내 교육철학자들의 Dewey연구의 큰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⁴⁰⁾

이렇게 논평한 申得烈은 또 孤松의 인간적 측면에 관해서 말하기를, “피난지 부산에서 한국교육학회를 창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회장이 되지 못했다고 늘 서운해 했다. 1968년 회장이 되었지만 학회발전에 끼친 공헌에 비해 너무 늦게 회장직이 돌아왔다고 불평을 했다.”⁽⁴¹⁾고 하였고, 또 학문적 측면에서도 솔직한 말을 하고 있다. 즉, “임한영은 프라그마티즘에 매력을 느껴 30여년을 이 연구에 보냈지만 연구방법 때문인지 관심의 분산 때문인지 체계적인 연구를 보여주지 못했다”⁽⁴²⁾고 했다.

孤松은 수많은 學術論文과 함께 저서 7권과 번역서 6권을 남기고 있다.⁽⁴³⁾ 그런데, 韓國教育學會에서는 1979년 孤松의 停年을 기념하는 《教育學研究》特輯號를 간행하였다. 이것은 우리 학회가 그에게 대한 최대의 敬意표시였다고 하겠다.

同特輯號에는 세 편의 관계 논문⁽⁴⁴⁾이 게재되었다. 孤松의 논문이 실린 것은 물론이다.

(40) 申得烈, 「林漢永의 生涯와 思想」, 上揭誌, pp. 81-82.

(41) 上揭論文, p. 80.

(42) 上揭論文, p. 81.

(43) 著書로는, 《教育思想史》, 博友社, 1955/《歐羅巴의 萬物相》, 黑白文化社, 1958/《教育哲學》, 豐國學園出版部, 1958/《教育學概論》, 正音社, 1962/《듀우이教育思想의 研究》, 民衆書館, 1968/《教育思想의 比較研究》, 培英社, 1976/《존 듀우이의 生涯와 思想》, 培英社, 1977.

그밖에 번역서, 共著 및 논문 등 목록은, 《孤松 林漢永博士 遺稿集—듀이哲學》, 法文社, 1987. 參照.

(44) 孤松의 論文으로 두 편은, 李南杓의 「John Dewey의 機能主義心理學」과 朴奉穆의 「John Dewey의 藝術論」이다. 《教育學研究》(特輯: 林漢永博士 停年退任記念) XVII-1, 韓國教育學會, 1979, pp. 5-35.

그는 「John Dewey 教育哲學의 定義」라는 제목으로써 그간의 연구성과의 精粹를 보여주고 하였다.

孤松은 듀이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였다.

듀이의 哲學은 經驗의 哲學이다. 그러므로 듀이에 의하면, “經驗적으로 追求한다면, 哲學은 哲學의 研究가 아니다. 오히려 哲學은 哲學에 의한 生活經驗의 研究이다.” 여기서 말하는 生活經驗이란 단지 衣·食·住와 같은 日常的인 活動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科學, 宗教, 政治, 經濟 등의 專門的 여러 活動을 包含한 生活로서의 經驗을 意味한다.

또한 그것은 現代의 生活經驗이기 때문에 哲學은 그것의 連續과 發展을 위하여 넓게 漫延된 問題 狀況을 서로 對立하는 諸興味の 再適應을 통하여 解決하려는 試圖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듀이의 見解를 살펴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哲學의 向方과 重要性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⁴⁵⁾

라고 喝破하였다.

한편, 孤松은 그 보다 수년 후에 공동집필한 교육학 교과서 중에서 듀이 哲學에 관하여 짧지만 매우 중요한 말을 남겼다. 즉, 그는 말하기를,

듀이는 철학하는 목적을 愛에 두지 않고 지식의 탐구에 두었다. 그에 따르면, 안다는 것은 확 실성을 찾아내어 그 확실한 이론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며, 행동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과 덕을 끼치는 積善과 德行을 뜻하는 것이다.⁽⁴⁶⁾

라고 하였다. 나는 이 두 가지 글을 引用함으로써 孤松의 듀이 哲學에 대한 定義요 解說로 보았다.

V. 基礎主義教育哲學

한국교육철학의 정립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의식한 나는 1957년 「基礎主義」를 命名, 1966년 이를 提唱하였고, 보다 체계적인 저술로써⁽⁴⁷⁾ 학적 해명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면관계로 지극히 간략하게 기초주의의 특성에 대해서만 논급하기로 하겠다.

첫째는 包括性이다.

모든 것에는 基礎가 있다.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그것이 없으면 전부가 없는 것과 같은 包括者가 곧 ‘基礎’인 것이다. 그러기에 基礎는 달리 말하면 ‘眞理’이다.⁽⁴⁸⁾ 진리인 基

(45) 林漢永, 「듀이 教育哲學의 定義」, 上揭誌, p. 15.

(46) 林漢永, 「第2章 教育의 哲學의 基礎」, 師範大學教育學科教授室編, 《教育學概論》, 漢陽大學校 出版院, 1985, p. 43.

(47) 拙著, 《基礎主義》, 서울, 培英社, 1973/拙著, 《現代人과 基礎主義》, 서울, 世光公社, 1979/拙稿, 「基礎主義의 構造」, 《師大論叢》, 第28輯,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1984/拙稿, 「덧의 論理와 基礎主義의 意味」, 《學術院 論文集》第二十四輯, 大韓民國 學術院, 1985 등.

(48) 이 ‘眞理’(基礎主義에서 말하는 ‘基礎’)에 해당되는 말에는 불교의 ‘眞如’ 도교의 ‘道’, 유교의 ‘仁’이니 ‘中庸’ ‘至善’, 기독교의 ‘사랑’ 등 대단히 많다.

礎⁽⁴⁹⁾에서 멀어질 때 그것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실로 ‘基礎’란 체험의 세계에 있어, 그러기에 通念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널리 是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基礎’ 개념의 교육철학적 새로운 해석은 대단히 귀중한 人間形成의 核思想體임을 알게 한다. 여기에는 人間形成의 論理가 담겨져 있다. 즉,

傳統×主體×改革=(基礎主義의) 基礎
 素材×意志×技術=創造
 감×마음씨×솜씨=멋
 Essence×Sentiment×Elegance=Mutt : Excellence

라는 等式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基礎主義는 모든 사람의 人生을 藝術的 境地에까지 昇華시키는 人間形成의 基本原理인 것이며, 역사적 의식인의 배양에 의한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적 교육철학이다.⁽⁵⁰⁾

둘째는 統合性이다.

기초주의에서는 歷史的 自我의 意識構造를 ‘球’라고 想定하고 있다. 이것은 이를테면, 시간성 대 공간성, 항존성 대 변화성, 단치성 대 다치성 등 現代教育哲學의 課題를 ‘對立’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調和’의 관계에서 풀어 보려고 하는 새로운 人間形成의 論理이다. 즉, 統合性의 특징을 지적할 수가 있다.⁽⁵¹⁾

세째는 力動性이다.

이것은 ‘基礎와 歷史的 狀況性’⁽⁵²⁾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변화 가운데 변치 않는 것의 추구가 基礎主義의 ‘基礎’이거니와 그러니만큼 歷史的 狀況性에도 관심을 쏟는다. 여기에는 전통 일치형을 비롯하여 전통 불일치형, 개혁 불일치형, 개혁 일치형, 전통·개혁 동시형이라는 다섯 가지 類型이 想定되어 教育思想史의 解明을 가능케 하고 있다.⁽⁵³⁾

넷째는 實證性이다.

기초주의에서는 ‘基礎로부터 새로운 基礎에까지’라는 말을 하나의 캐치 프레이즈로 사용하기도 하거니와, 「基礎主義의 方法論的 省察圖」⁽⁵⁴⁾는 기초주의가 지니는 實證性을 단적으로 보인 것의 하나라고 하겠다.

다섯째는 普遍性이다.

(49) 拙稿, 「‘基礎’ 개념의 教育哲學의 新釋」, 《林漢永博士回甲紀念教育學論叢》, 1974, pp.93-118.

(50) 拙著, 《教育原理—教育哲學概說》, 서울, 博英社, 1982, pp.397-399.

(51) 上揭書, pp.399-401.

(52) 拙稿, 基礎主義와 歷史的 狀況—「論理構造指南의 機能의 問題」를 中心으로—, 《새교육》 257호, 大韓教育聯合會, 1976.3.

(53) 拙著, 《教育原理—教育哲學概說》, pp.401-402.

(54) 拙稿, 「基礎主義의 方法論 序說」, 《師大論叢》, 第21輯, 1980, p.62.

基礎主義는 ‘人間形成을 위한 論理構造指南의 機能의 哲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위에서도 기초주의가 지니는 ‘普遍性’의 특성이 지적되었거니와 기초주의는 時·處·位를 묻지 않고 적용될 것을 기약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여기서 사용한 理念이나 개념 등 표현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세계적 규모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택하여, 그것을 하나의 教育的 術語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또한, 基礎主義가 제시한 ‘傳統과 改革의 調和를 통한 人間形成의 論理’라는 것은 한국은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간 형성의 논리로서 통할 수 있는 것이니 普遍性을 지닌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基礎主義가 說破하는 인간형성을 위한 論理構造는 각자가 이것에 의하여 자기형성이 가능하며, 하나의 指南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니 이것 역시 普遍性에 통하는 일인 것이다.⁽⁵⁵⁾

여섯째는 實踐性이다.

‘發展과 統整의 律動的 自己展開’라든가, ‘基礎로부터 새로운 基礎에까지(自己深化)’, ‘힘을 뻗는다는 것은 힘을 들인다는 것이다(힘의 使用—極에서 極까지)’ 등의 표현은 모두 基礎主義의 教育方法論의 特徵 내지 原理를 나타낸 말들로서 강렬한 實踐性을 전제로 삼고 있다. 흔히 교육이념으로서 잘되어 있으나 교육 방법론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더라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된다. 基礎主義는 인간 형성의 論理를 제시한 것이니만큼 거기에는 처음부터 그것의 具顯化, 實踐의 方途가 예상되었음은 물론이다. 教育方法으로서 3次元(探究·覺醒·實現) 6段階(目的·計劃·蒐集·理會·發表·評價)를 설정한 것 역시 實踐性의 일면을 의미한다. 이것이 곧 ‘基礎主義法’이다.⁽⁵⁶⁾

이상, 나는 ‘基礎主義란 무엇인가’를 말함에 있어, 包括者로서의 ‘基礎’, 傳統과 改革의 調和를 통한 人間形成의 論理, 基礎와 歷史性 狀況性, 基礎로부터 새로운 基礎에까지, 人間形成을 위한 論理構造指南의 機能의 哲學, 發展과 統整의 律動的 自己展開라는 여섯 가지 특성을 들었다.

말을 달리 하면, 基礎主義의 特性이란, 教育哲學評價의 基準用語도 되는, 包括性, 統合性, 力動性, 實證性, 普遍性, 實踐性에 있다고 하겠다.

VI. 韓國教育哲學의 課題와 展望

새로운 한국교육철학의 모색 내지 정립이라는 과제 의식은 근래에 이르러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감이 있다. 이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 시대적 요청과 학문적 요청에 부응토록 해야 되리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선인들의 업적에 대한 學史的 研究가 필요하다. 本稿는 그 중에

(55) 拙著, 《教育原理—教育哲學概論》, pp. 404-405.

(56) 上揭書, pp. 405-406.

서도 특히 「現代韓國教育哲學의 理解」에 초점을 두고 학사적 논구를 시도해 본 것이다.

그간 우리 나라 교육철학 연구분야에 있어서 공헌하였고 또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학자를 거명하여 보았다. 여기에는 오천석을 비롯하여 김계숙, 김기석, 이인기, 허현, 립한영, 한기언, 류형진, 안인희, 박봉목, 김정환, 김제만, 김선양, 정세화, 정순목, 김인희, 이돈희, 한명희, 김은산, 신득렬, 황원영, 오인탁, 박선영, 이홍우, 김안중, 성기산, 김영채, 정영수, 이근엽, 박덕규, 남궁달화 등이 말하여졌다.

이들 제학자들이 그간 다루어 온 교육철학의 계보로 말하면, 전통적인 교육철학으로서의 유교철학이나 불교철학을 비롯하여, 乙酉光復 이후 한국 새교육운동의 지도 이념이 되었던 듀이 교육철학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인 본질주의, 향존주의, 개조주의 교육철학,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구미교육철학으로서 도입된 실존주의, 구조주의, 분석주의, 인간주의 교육철학 등, 한편 새로운 한국교육철학 정립을 기치로 제창된 기초주의 교육철학, 해서 다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생각컨대, 새로운 韓國教育哲學 定立을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선결사항 내지 전제사항이 있다고 본다.

첫째, 教育學史 내지 教育哲學史의 研究이다.

새로운 教育理論, 새로운 교육철학의 출현은 항상 기성 교육이론 내지 기성교육철학과의 대결 내지 비판에서부터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점 앞으로도 꾸준한 기초적인 연구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둘째, 기초적인 연구작업의 하나로서 教育學古典에 관한 研究가 요청된다.

근래에 이르러 코메니우스의 《大教授學》이라든가 헤르바르트의 《一般教育學》, 그리고 현대 교육철학자인 듀이의 《民主主義와 教育》, 보르노의 《教育의 人間學》 등이 번역 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교육학 고전에 관한 연구로 말하면, 앞으로 한국, 동양 및 서양의 교육학 고전이 두루 번역 간행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것은 기왕에 번역된 교육학 고전의 목록을 정리하는 동시에 한편에 있어서는 지극히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번역, 간행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셋째, 現代教育哲學의 受容, 攝取의 問題이다.

새로운 한국교육철학의 정립을 위한 기본태도의 하나로, 우리는 항상 열려있는 꼴의 학문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외국교육학, 외국교육철학의 이론 및 학적 동향에 대하여 예민한 촉각과 수용·접취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研究集談會, 研究會, 學會 活動의 活性化가 필요하다.

교육철학의 체계화는 교육철학자 개개인의 孤獨한 思惟過程 속에서 추진되는 것임은 선현들의 경우를 상고하여 보아도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편, 하나의 새로운 교육철학이

보다 완속해 지고 세련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눈과 머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 또 때로는 크게 동조하는 학자가 나와서 하나의 學派形成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그것을 비판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새로운 교육철학의 정립을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다섯째, 과감히 새로운 교육철학을 제시해 보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교육철학의 정립을 시도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마지막 단계이자, 새로운 교육철학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시발 단계라고도 하겠다.

이상 나는 韓國教育哲學의 摸索, 韓國教育哲學思潮, 民主主義教育의 建設, 듀이教育哲學의 探究, 基礎主義教育哲學, 韓國教育哲學의 課題와 展望이라는 순서로써 「韓國教育學史의 研究」중 ‘現代教育哲學의 理解’를 시도해 보았다.

A Study on Scientific History of Korean Education
—Comprehension of Modern Korean Philosophy of Education—

Hahn, Ki Un

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modern Korean philosophy of education (KPE) in the scientific history of Korean education. In this context, I investigated it as follows:

First, I refer to grope for KPE. In 1960s, it is obvious that one became aware of needs to formulate KPE. In addition,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ilosophy of education treated the theory of ideas, of acceptance and methodology as a subjects of “the grope of KPE” for 3 times from 150th (September, 1988) monthly meeting for reading papers. I read a treatise on a subject of the theory of ideas-centering around foundationism. In this treatise, I clarified historically how Korean scholars have felt and dealt with it since 1945 (Korea’s Independence Day).

Second, it is about to consider the stream of KPE. I mentioned scholar’s name who contributed and contribute now to our scientific field of philosophy of education. (PE) And I traced the genealogy of PE which are investigated by them.

Third, it i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democratic education. I looked into Oh Chun Seok’s (1901~1987) achievements and contributions in PE. His opinion is as follows: 1) Koreanization of democracy, 2) Democratization of nationalism, 3) Humanization of modernization. It is a little change of three gists (democratization, modernization and Koreanization) in his work *Education and National Rehabilitation* which are published in 1963. And he, too, proposed 6 essential points in “some suggestions to perform the guide post for desirable Korean education.” i.e. 1) for the completion of regulate character, 2) for the growing the ability of self decision making, 3) for the developing active accommodation to the change, 4) for the production of identical consciousness of high value, 5) for the standing point to eternal growth, 6) for the participation to the creative world.

Forth, it is connected with the research for Dewey’s PE. I inquired into Rim Han Young’s (1914~1986) works and scientific contributions. He leaves a lot of dissertations,

7 writings and 6 translations behind. And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KSSE) published a special edition of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for his retirement under the age limit in 1979. It is a great payment of KSSE's respects for him. In that special edition, 3 related dissertations including that of Rim's inserted. In his dissertation, the essence of his scholartic results, which is titled "the Definition of John Dewey's Philosophy of Education," he explained his great services for the study of Dewey's PE and his own criticism against him, too.

Fifth, it is about to the PE of Kichochuii (Foundationism). Awaring of historical needs to formulate the KPE, I gave name it as "Kichochuii" in 1957, declared in 1966 and is studying academically for the more systematic works. I touched only upon 6 characters of Kichochuii as a limit of space. i.e. 1) a nature of comprehension, 2) of integration, 3) of dynamics, 4) of positiveness, 5) of universality and 6) of practicality. Kichochuii is widely known as a human shaping logic through a harmony of tradition and reformation: 3 ideas (that of time, freedom and order) and 6 concepts (that of culture, life, intelligence, character, cooperation and service) are constructed educational ideas and educational value system respectively.

Sixth, I refer to the problems and prospects of KPE. I indicated 5 points for a reconsideration or precondition to formulate new KPE. i.e. 1) a research of scientific history of education or that of PE, 2) a research of educational classics as a basic study, 3) a problem of acceptance or adaptation of modern PE, 4) activation of study group, meetings for reading papers, and so on, 5) daring to represent new PE.